

색채어등을 이용한 문헌 저작자 진위 판별에 위한 연구

이근무*, 이근우**

* 경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부경대학교 사학과

The Study on Author's Determination Usng Color Word

Rhee KunMoo, Rhee KunWoo

*Dept of Computer Science, Kyongju University

**Dept of History, Pukyung University

요약

이 논문에서는 현재 화랑세기 등 고대사 저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저작자의 진위를 추정해 보는 데 있다. 이런 방법론의 전통은 성서의 바울서한의 저자의 진위 논쟁, 셰익스피어 작품의 진위논쟁 등 세계적 관심이 되는 것에서부터 정치적 사건 및 개인의 송사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논구될 수 있으며 이런 결과들은 현재 우리의 인문학계 특히 고대사학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거대 담론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유용한 실증적 전거를 마련해주게 될 것이다. 또한 다학문적, 학제적 연구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1989년에 초략본 화랑세기가 발견된 직후부터 그 진위를 둘러싸고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후 초략본 화랑세기와 1995년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필사본 화랑세기를 7세기 말의 김대문이 저술한 책으로 인정하려는 측과 이를 위작으로 보는 측은 팽팽히 대립하여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물론 양 극단에 있는 주장 사이에는 진위판정에 좀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은가 하면, 진위 여부를 떠나서 필사본 화랑세기가 신라사회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반영하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화랑세기를 둘러싼 이러한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라고 하는 우리 고대사화에 대한 극히 제한된 자료만을 가지고 그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문헌의 진위감정은 1) 기재내용의 검토와 역사적 사실의 고증, 2) 필적의 감정, 3) 지질 먹 등의 화학적 분석에 의한 연대추정 등의 방법에 의존하였다.

문제가 되는 필사본 화랑세기는 20세기에 들어서 남당(南堂) 박창화(朴昌和)에 의하여 필사된 것이라고 하므로, 2)나 3)의 방법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는 주로 1)의 방법에 의존해 왔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화랑세기에는 보이지만 삼국사기 등에 보이지 않는 사실관계를 여타의 사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1)의 방법이 결정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해서 신라사회를 보는 연구자들의 시각에 내재해있는 개인적인 편차도 화랑세기의 진위감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화랑세기의 진위감정에는 연구자 개인의 편차가 개재되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문헌계량학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화랑세기의 진위감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문헌

계량학의 방법은 문장의 길이, 단어의 길이, 품사의 출현율, 특수한 단어의 출현율 등 문장의 수량적인 성질을 조사함으로써, 집필자의 문장스타일이나 문장습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 논문은 제1절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제2절에서는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제3 절에서는 색채어를 이요한 저작자 진위 판별을 시도하고 제4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는 적지 않은 위작(僞作) 혹은 도작(盜作)들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제7서한』, 『구약성서』 이사야서 제 40장 이후, 『신약성서』 중 14종의 바오로서한, 일본의 헤이안시대에 무라사키노시키키부(紫式部, 973?-1019?)가 지은 대하소설 『원세 물어(源氏物語)』 중 『우치십첩(宇治十帖)』이라고 불리는 후반의 10권, 셰익스피어의 희곡, 영국 조오지 3세 때 유니우스(Junius)라는 필명으로 1769년부터 1772년에 걸쳐 당시의 지배층을 비판하기 위해서 신문에 투고된 『유니우스 레터(Junius Letter)』, 미국 국민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1835-1910)의 저작 중 전쟁모험담인 『큐시에스 레터(Q.C.S Letter)』, 일련종(日蓮宗)의 개조(開祖) 니찌렌(日蓮)의 저술이라고 하는 『삼대비법통승사(三大秘法稟承事)』, 미국 헌법의 해설서로서 정치학상 중요한 문헌인 『연방주의자(Federalist)』, 미국 신문왕의 딸 패트리시아 허스트의 유괴 사건 때(1974)와 관련된 성명문 등 철학서 종교서 문학작품 역사서 신문기사 서한 등 어느 분야라고 할 것 없이 위작 혹은 위작의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게 있다.

특히 유명한 사상가나 종교가 소설가 등의 저술이라고 가탁한 글들이 적지 않으며, 그러한 위작들은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해나 학문 연구를 현저히 방해한다. 위작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아무리 진작(眞作)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위작일 따름이다. 오히려 진작과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사상 학문 종교의 연구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학문적 종교적인 대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이 위작을 가려내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문헌들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이른바 필사본 화랑세기도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위작 논쟁을 불러일으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진위 여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쌍방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1851년 런던대학 수학교수이고 논리대수의 창안자인 드 모르간(Augustus De Morgan)은 켈브리지의 목사 해럴드에게 편지를 보내서 신약성경 중에서 바울서간 집필자에 대한 추정문제를 관련하여 각 서한에 대한 단어당 평균 문자수를 이용하여[1] 작자의 진위를 찾아낼 수가 있음을 밝혔다. 이 서한은 1882년 사후 그 부인에 의해 출판되었다.[2] 이를 본 오하이오대학의 물리학자 멘덴홀(T.C. Mendenhall)은 집필자를 추정하는데 모르간이 제안한 단어당 평균 문자수보다

는 단어 길이의 범위(range)와 분포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멘덴홀은 1887년 SCIENCE 지에 동일한 집필자가 작성한 문장에 나타나는 단어길이의 도수분포를 WAIT SPECTRUM이라 이름하고 이를 이용하여 집필자를 추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1901년 멘델홀은 Shakespeare작품의 진위논쟁에 뛰어 들어 그때까지 Shakespeare의 생애에 대해 불분명한 것이 많아 그의 작품이 동시대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Francis Bacon을 위시해서 여러 동시대 인물들이 쓴 것이라는 설이 퍼져 있었다. 멘덴홀은 Shakespeare와 Bacon의 작품에서 각각 40만 단어와 20 만 단어를 표집하여 단어의 길이의 분포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Bacon은 1단어 당 3문자에 최빈값(mode)을, Shakespeare는 4문자라는 것을 보여 주어 Bacon이 Shakespeare작품의 저자라는 설을 부정하였다.

그 이외에도 수학자 코시(A. L. Cauchy)는 평균, 중앙값, 사분위범위를, “그리스도에 대해서”(The Imitation Christ:De Imitatione Christi)의 저자를 찾는데 이용하였으며, 위에서 살펴 본 문장의 길이에 관한 척도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서 1944년 율(G. U. Yule)은 저자의 어휘량에 주목하여 그는 K 특성치를 제안하였다.[3]1986년 藤泥偉作은 율의 데이터를 정준 상관을 이용하여 율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4]

이외에도 구약의 이사야서에 대한 진위 논의 역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사야서는 여러 사실적 의문으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39장을 전후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작자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973년 Adams와 Rencher는 헤브라이어의 접두어의 사용비율을 이사야서에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이사야서의 전후반부 간에는 접두어의 사용율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사야서는 1인에 의한 저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5] 그러나 1994년 村上征勝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이들의 방법론을 다른 구약성경에 대한 무선표집을 통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접두어를 이용한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집한 모든 구약의 부분들에서 높은 상관을 보여 이를 통해 구약전체가 한사람의 집필자에 의한 저작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 Adams와 Rencher의 연구에 회의를 표시하고 이사야서 집필자에 대한 추정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6]

3. 색채어를 이용한 저작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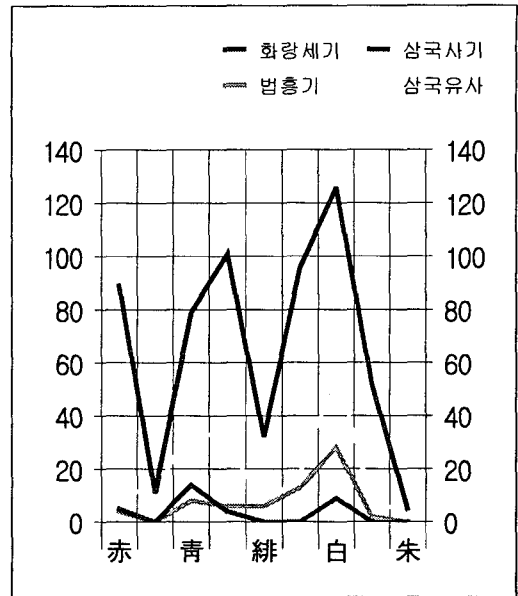
문장특성을 비교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특정 문헌에서 사용된 색채어들이다. 색채어 역시 작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들의 출현분포 역시 작자의 관정에 유효한 수단이 된다.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박창화의 저술 전체에 대한 자

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시론적인 입장에서 화랑세기, 법흥진기,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색채어들을 분석하였다. 색채어의 분석에서는 색채어의 출현빈도보다는 어떤 색채에 해당문헌이 반응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참고로 출현빈도와 출현율을 검토해 본 결과는 <표1> 및 <그림 1>과 <표2> 및 <그림2>와 같았다. 전체 문자 수에서 색채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화랑세기가 가장 낮고 법흥기가 가장 높아서, 색채어의 출현빈도에서는 두 문헌 간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색채어 출현율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해당문헌이 색채어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면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온다. 즉 화랑세기와 법흥기는 각각 紅色과 朱色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9개 색채에 모두 반응하였다. 물론 화랑세기는 9개 색채 중 5개에 반응하지 않아서, 색채어의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창화의 저술에 대해서 좀더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색채어를 통해서도 화랑세기와 박창화 저작들 상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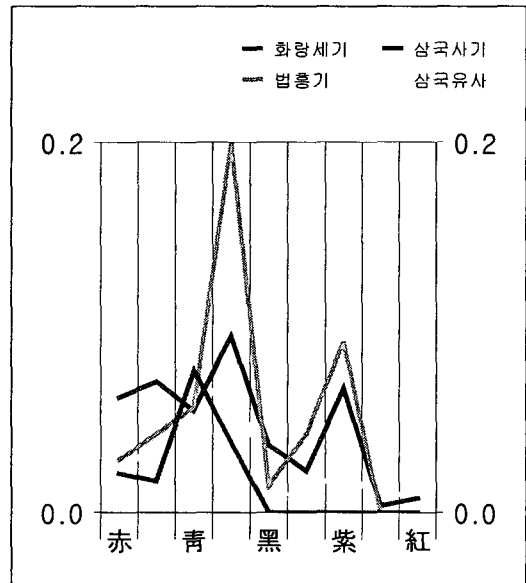
<그림 1> 색채어 출현빈도 비교

<표 1> 색채어 출현빈도

색채어	화랑세기	법흥기	삼국사기	삼국유사	비고
赤	5	4	89	12	
紅	0	0	11	11	
靑	14	8	79	36	
黃	4	6	101	30	
緋	0	6	32	6	
紫	0	13	96	18	
白	9	28	126	57	
黑	0	2	52	8	
朱	0	0	5	3	
총문자수	32	67	591	181	인명 지명 제외
전체 백분율	0.1069	0.3780	0.3283	0.2011	

<표 2> 색채어 출현율

색채어	화랑세기 백분율	법흥기 백분율	삼국사기 백분율	삼국유사 백분율
赤	0.0167	0.0226	0.0494	0.0133
黃	0.0134	0.0339	0.0561	0.0333
靑	0.0611	0.0451	0.0439	0.0400
白	0.0301	0.1580	0.0736	0.0633
黑	0.0000	0.0113	0.0289	0.0089
緋	0.0000	0.0339	0.0178	0.0067
紫	0.0000	0.0733	0.0533	0.0200
朱	0.0000	0.0000	0.0028	0.0033
紅	0.0000	0.0000	0.0061	0.0122



<그림 2> 색채어 출현율 비교

4. 결론

이상으로 색채어를 중심으로 해서 화랑세기와 범홍진왕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해 보았다.

색채어를 통한 비교에서는 역시 화랑세기와 범홍진왕기가 검토대상이 된 9가지 색 중에서 각각 4개와 7개에만 반응하고 있어서, 전체 색채에 반응하고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와는 차이가난다.

이러한 결과로 화랑세기가 위서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박창화의 저술로 생각되는 범홍진왕기와 비교해 볼 때, 양 문헌이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R. D. Lord, Studies in the history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VIII. De Morgan and the statistical study of literature style. *Biometrika*, 45, 1958
- [2] S. E De Morgan, Memoir of Augustus de Morgan by his wife Sophie Elizabeth De Morgan with selection from his letters. Longman, Green and Co., 1882. _
- [3] G. U. Yule, The statistical study of Literacy Vocabular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4
- [4] 藤尾偉作, 未知の著作権の推定について. BASIC 數學 2月号, 1986
- [5] L. L. Adams and A. C. Rencher, The popular critical view of the Isaiah problem in light of statistical style analysis. *Computer Studies in the Humanities and Verbal Behavior* . 7(3-4), 1973.
- [6] 村上征勝, 眞贋の科學, 朝倉書店, 1994.